

감염 취약한 어르신들 외부활동 자제 맞는데...

고흥군 노인 일자리 사업 '고민되네'

고령인구 비율 40%에 독거노인 8000여명...생계·건강 걱정 전남 유일 4개 사업 추진...갈 곳 없는 노인 활력 불어넣기 고심 사회적 거리 두고 급여 '先지급·後근로' 등 탄력행정도 필요

고흥은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2만 5914명이다. 전체 군 인구 6만 4728명의 40.0%에 이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곳은 광주·전남에서는 고흥이 유일하다. 전국적으로도 경북 의성(40.2%)과 고흥 뿐이다.

고흥의 혼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외부 활동을 자제토록 하는 게 맞지만 노인들 건강과 생계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가뜰이나 젊은층이 도시로 빠져나간데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노인들마저 집에 틀어박혀 눈에 띄지 않으면서 활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어떻게 되살릴 지도 막막하다.

◇안 할 수도 없어서 혼소만...전남도와 21개 시·군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세로 모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했다. 고령화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자칫 감염병의 지역 확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고흥군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중이다. 22개 사업 중 유일하다. 감염병 확산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게 ▲노노(老老)케어 ▲가가호호 급식배달 ▲전통식품 사업 ▲고흥 손맛 반찬 등 4개 사업이다. 노노(老老)케어는 65세 이상 노인들 310명이 또래 노인들 2명씩 맡아 한 달에 10차례 찾아가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가가호호 급식배달은 노인들 71명이 만든 밑반찬, 김치, 도시락, 고추장, 된장 등을 23명의 노인들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들 338명에게 일주일에 두 차례 전달하는 사업이다. 총 648명의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다. 홀로사는 독거노인만 8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렇거나도 안부를 살피고 식사를 챙기지 않는다면 자칫 생계와 건강을 위협받을 지 모른다는 게 고흥군 생각이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감염 우려를 걱정해 사업을 중단했다가 오히려 다른 병으로 이어질 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할 경우 월 최대 59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노인들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고흥군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예방의학과 전문의들은 노인들이 될 수 있는 한 동일한 공간에 모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노인들에게 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코로나19가 퇴치된 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탄력행정을 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촌마을 침체에 활력도 떨어져 혼소만 고흥군은 그대로 진행하는 4개 사업

이외 애초 계획했던 17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잠정 중단한 상태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을 취소, 중단했고 지방어를 짚고 유모차에 의지해 찾던 경로당 문도 닫혔다.

평소 같으면 매일 지역 노인복지관 1곳, 경로당 640곳, 노인교실 3곳 등 644곳에 몰려들어 적적함을 달랠던 노인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마을 곳곳에서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젊은이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농촌 공동화'가 심각해지는데다, 그나마 노인들마저 집 밖을 나서지 않으면서 활력이 라곤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일부 정책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서 지역 노인들 안부와 생계를 살필 수 있는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업현장 '방진마스크 대란'

시멘트·석면제거 업체 등 "작업 어떻게 하나"

"작업을 하려면 (방진) 마스크가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어 큰 일입니다."

영광에서 콘크리트 수로관을 제조하는 A업체는 7명의 근로자에게 매일 1장씩 지급해야 할 방진마스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할 데가 없어 보유하고 있는 20개들이 1박스가 떨어지면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A업체 대표는 "방진 마스크까지 품귀 현상이 빚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며 "남은 1박스가 떨어지면 그땐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발 마스크 대란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전국에서 월 1100만 장이 생산되던 산업용 방진 마스크의 생산량이 1300만 장으로 늘어났음에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산업계에서는 수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업체들이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구매하는 인터넷종합쇼핑몰의 경우 2월 말부터 방진 마스크가 전부 품절됐다. 하루 평균 10건의 제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쇼핑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시멘트 순창공장도 2월 초부터 방

진마스크 확보에 나섰지만 여태껏 구하지 못한 상태다.

공장 관계자는 "집진실 근로자 10명이 매일 착용해야 하지만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백방으로 구해보고 있지만 언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석면제거 업체, 도색 업체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방진 마스크 품귀 현상은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보건용 마스크보다 비교적 구매가 쉬운 방진마스크로 눈을 돌린 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도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방진 마스크가 꼭 필요한 근로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시 서구에 살고 있는 B(46)씨도 오들대로 오른 보건용 마스크 가격과 방진 마스크 간 가격 차이가 별로 없고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쉽게 구할 수 있어 지난달 인터넷에서 한 박스를 구매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석면·가공업체 등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방진 마스크의 경우 감염병 방어 기능이 약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착용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도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구 보낼 면마스크 만들어요" 18일 광주시 북구 장애인복지회가 운영하는 장애인리뷰 리폼사업장에서 북구청 장애인복지팀 직원들과 의류리뷰 참여자들이 면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이 마스크는 한국지체장애인 대구 달서구지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choiwangju.co.kr

수로에서 유입 토사로 차량 미끄러져 교통사고 법원 "광주시·농어촌공사 손해 배상해야" 판결

승용차를 타고 가다 수로에서 도로로 유입된 토사 및 지표수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환 판사는 차량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가 광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총 5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9일 자신의 차량을 타고 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인근 도로를 지나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로에서 유입된 토사 및 지표수 등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씨 등은 1000만원이 넘는 차량 수리비와 2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렌트료를 냈고 이후 광주시와 농어촌공사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광주시와 농어촌공사가 공공의 목적에 의해 설치된 도로, 수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전자와 동승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 오흥리 야산 화재...대발 태우다 불씨 옮겨 붙은 듯



18일 오후 5시께 나주시 문평면 오흥리인근 야산에 화재가 발생, 소방 헬기가 진화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대발을 태우다 불씨가 인근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큰 불길은 잡힌 상태지만 추속 4.2m의 강풍이 불고 있고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도 제공>

차량서 훔친 롤렉스 시계 짝퉁인 줄 알고 버렸는데...

○...40대 차탈이범이 훔친 롤렉스 시계를 '가짜'로 생각해 버렸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서서 등 골머리. ○...1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Z아파트 인근 공터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BMW차량 속의 롤렉스 시계 등 2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해 2차례에

걸쳐 총 2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는 것. ○...훔친 금품 중 상품권을 포함 198만 원 상당을 들고 있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롤렉스 시계가 짝퉁인 줄 알고 첨단 2지구 일대 거리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관계자는 "A씨가 진술한 주변을 수색했지만 시계를 찾을 수 없었다. A씨가 장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분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